

협회 교육과 함께 한 상하수도기술사 합격수기

상하수도기술사라면 으레 엔지니어링 업체 전문가만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올해부터 실시된 협회의 최고 전문가 교육과정인 '상하수도 고급기술자 양성과정'을 통해 벌써 두 명의 기술사가 탄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사업처에 근무하는 현상락 씨(35세, 87회 기술사)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연구사로 있는 박수이 씨(42세, 1차 합격)에게 그간 공부했던 방법과 합격의 비법을 들어보았다.

협회에서 시행하는
고급기술자 양성과정
이 큰 도움
현상락 씨



저는 2007년부터 시험준비를 시작해 네 차례 응시한 후 제87회 상하수도기술사에 드디어 합격하였습니다. 제 경우 같은 부서에 기술사를 취득하신 분이 세 분이나 계셔서 큰 힘을 얻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험 응시를 생각했던 것도 그 분들에게 자극을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또 설계 업무를 하는 만큼 기술사를 꼭 취득하겠다는 의지로 준비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설계사업처의 부서 특성상 야근이 많고 해외출장이 잦다 보니 규칙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험공부를 했고, 주말 이틀 중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우선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암기보다는 상·하수도 시설기준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시사문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파악하고 정리했는데, 이것이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 시행하는 고급기술자 양성과정을 통해서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주는 상수도 분야, 두 번째 주는 하수도 분야의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에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현인환 교수님과 김용호 교수님의 상하수도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강의는 책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상하수도 분야의 정책과 기술발전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시 답변과 행동 요령을 배우며, 실제 면접과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지적받은 사항을 유의하여 실제 면접에 임한 덕분에 한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꾸준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가지면 좀 더 빠른 시간안에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기술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협회 김범석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하수도기술사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시험지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0점당 1장을 서술하는 것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아는 문제라고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쓰지 않는 것도 요령입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한 답안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시간이 부족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합격점을 획득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는 내용을 더 쓰고 싶으면 차별화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경우, 어렵듯이 알고 쓴 답안은 평균 40점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정리가 안 된 답안은 평균 50점대가 나왔습니다.



아는 문제라고 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쓰지 않는 것이 요령

박수이씨

합격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열하기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보고서(논문)에 의하면 ~~~~라고 보고된 바 있다.(건설기술연구원)’ 처럼 말입니다. 또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실패·성공담, 개선내용) 등을 추가하는 경우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교시에 나온 문제 중 특이한 문제는 비슷한 문제로 바뀌어서 2~4교시에 꼭 1문제 이상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쉬는 시간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진하여 올해 최종 면접까지 합격해 협회에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